

포스트휴머니즘과 사이보그의 혼종성: 카르멘 보우요사의 『지상의 천국들 *Cielos de la tierra*』과 『완벽한 소설 *La novela perfecta*』을 중심으로*

김 선 영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국문초록

멕시코 소설가 카르멘 보우요사의 『지상의 천국들 *Cielos de la tierra*』(1997)과 『완벽한 소설 *La novela perfecta*』(2006)은 포스트휴먼 시대를 마주한 인간의 양가적 감정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소설은 ‘혼종성(Hybridity)’이 강조된 사이보그를 재현하며 기계와 인간이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순간 기계가 모든 것을 통제할 지도 모른다는 인간의 근원적 불안감을 담아내면서도 복합적이고, 다중적이고, 유동적인 주체로서 포스트휴먼의 긍정적 가치를 강조한다. 전통적인 인간의 몸이 유럽남성중심주의를 바탕으로 한 성적 양극화와 젠더 이분법을 상징한다면, 혼종성이 강조된 사이보그의 그로테스크한 몸은 이원론의 지배에서 주체를 탈식민화한다. 본고는 보우요사가 재현한 혼종성이 강조된 사이보그가 어떻게 인간-기계의 결합의 과도기적 상태를 강조하여 기술적 타자와 인간 사이의 균형에 대해 고민하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본고는 소설에 나타나는 사이보그가 어떻게 물질/비물질의 경계를 흐리며, 사이보그의 혼종성이 강조된 신체가 어떻게 인간의 생물학적 몸의 의미로부터 탈주하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인간이 기계와 구분되는 지점을 역사적 글쓰기와 창조적 글쓰기를 통해 찾으려는 등장인물들의 행위를 살펴봄으로써, 포스트휴먼 시대 인간적 가치에 대해 검토한다.

주제어 : 카르멘 보우요사, 포스트휴먼, 사이보그, 혼종성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7050643).

I. 머리말

멕시코 문학의 포스트휴머니즘¹⁾ 연구는 20세기 말에 등장한 SF 소설 (Science Fiction), 그래픽소설과 맞물려있다. 이 시기에 등장한 SF 소설 들은 사이보그, 기계, 인간과 비인간이 재현하는 디스토피아를 포스트 휴머니즘적 관점에서 담아낸다. 정확한 시대를 특정할 수 없는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사이보그들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보우요사의 소설들을 SF 장르에 포함시키는 비평가들도 있다. 하지만 보우요사의 소설 속 사이보그는 단순히 기계와 인간의 외부적 결합에 초점을 맞춘 사이보그를 다룬 전통적인 SF 소설들과 결이 조금 다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멕시코 소설가 카르멘 보우요사의 『지상의 천국들 *Cielos de la tierra*』(1997)과 『완벽한 소설 *La novela perfecta*』(2006)은 로보캡이나 사이보그, 안드로이드 같은 ‘기술적 타자’에 대한 재현보다는 기술을 사용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에 주목하며, ‘기술적 주체’로서 포스트휴먼에 대한 새로운 존재론적 성찰을 요구한다. 이 존재론적 성찰이라 함은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환경에서 어떠한 가치관, 도덕,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다. 포스트휴먼은 단순히 인간과 기계의 기술적 결합을 넘어서 인간과 기계, 생물과 무생물의 광의적 결합을 지향하며, 기술적 타자와 인간 사이의 균형에 대해 고민한다.

뉴밀레니엄 전후로 탄생한 두 소설에는 공통적으로 포스트휴머니즘으로의 전환이 야기한 인문학적 고민이 깃들여 있다. 과학 기술의 비약

1) 본고에서 언급하는 포스트휴머니즘은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으로서 그 담론의 중심에는 근대적 주체에 대한 회의와 반성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인간-비인간의 경계를 흐리며 ‘인간’의 범주에 포섭되지 못했던 타자들과 함께하는 사회를 지향한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비판적 포스트휴먼 담론은 아르투로 에스코바르(Arturo Escobar)(2022)가 제안하는 ‘플루리버스(pluriverse)’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에스코바르의 연구는 “탈주체화와 탈객체화”를 시도하며 “인간에 대한 기존의 지배적 개념에 도전”하고, “문명적 전환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 포스트휴머니즘의 실천적 영역과 연결된다(2022:237).

적인 발전은 인간의 유한성을 뛰어넘으며 인간의 지적, 물리적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하게 한다. 『지상의 천국들』에서 미래 인간의 언어는 모두 코드화되고, 전산화된다. 또한 소설은 의학 기술의 발달로 유전자가 조작되고, 기계에서 잉태되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무의미해지는 시대를 그린다. 『완벽한 소설』²⁾은 IT기술의 진전이 어떻게 작가와 글쓰기의 형태를 바꾸어 놓았는지를 그린다. 이 소설에서 작가로 등장하는 주인공은 햇바닥 아래에 놓은 작은 칩을 통해 자신이 상상하는 내러티브를 완벽하게 재현하고자 한다. 그의 소설은 글이 아닌 이미지로 재현되고, 어떠한 왜곡도 없는 작가의 생각을 투사한다. 하지만 완벽한 소설을 재현하려는 그의 노력은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교란시키고 혼동을 초래하며 결국 실패로 끝난다.

두 작품 속 사이보그는 기존 SF 장르 속 사이보그의 형상과 조금 상이하게 재현된다. SF 장르 속 사이보그는 우리에게 여전히 인간 보다는 기계에 더 가까운 존재로 인식된다. 이는 아마도 SF 장르에서 재현되는 사이보그의 형상이 인간과 기계의 결합으로 탄생한 사이보그를 완벽한 조화로 탄생한 매끄러운 실체로 그리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지상의 천국들』과 『완벽한 소설』에 등장하는 사이보그는 오히려 인간과 괴물의 중간 단계, 인간과 기계의 중간 지대에서 탄생한 기괴한 존재로 묘사된다. 즉, 보우요사의 소설 속 사이보그들은 세련된 사이보그가 아닌 인간과 기계의 혼종성³⁾이 극대화되고 인간의 기계화가 진행 중인 과도기

2) 소설 속에서 등장하는 “비오이보르헤스적인 것(lo bioyborgesbianco)” (Boullosa 2006:54)라는 말이 보여주듯, 소설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Jorge Luis Borges)와 아돌포 비오이 카사레스(Adolfo Bioy Casares), 호세 비안코(José Bianco)의 환상 소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특히, 최첨단 기계로 가상현실을 투사한다는 설정은 비오이 카사레스의 『모렐의 발명 *La invención de Morel*』(1940)을 떠올리게 한다.

3) 혼종성은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어 왔다. 1990년대 혼종성이라는 개념으로 라틴아메리카의 탈식민화에 대해 연구한 네스토르 가르시아 칸클리니(Néstor García Canclini)는 ‘혼종성’ 개념을 통해 서구중심주의에 근간을 둔 서구의 근대성 개념을 재해석한다. 혼종성 개념은 이후 사회과학 분야의 다양한 연구에서 심화, 발전되며, 인종, 다문화연구를 비롯해 정체성 연구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분석을 내놓았다. 21세기에 들어서 혼종성이라는 용어는

적인 실체이다. 보우요사의 소설은 사이보그, 로보캡과 같은 ‘기술적 타자’에 쏠린 SF의 시선을 우회하여 기괴한 형태의 혼종성에 주목함으로써 복합적이고, 다성적이고, 유동적인 ‘기술적 주체’를 재현한다.

『지상의 천국들』이 비평가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이다. 미국의 비평가 아나 레이드(Ana Reid)(1995, 1999)를 비롯해 하비에르 두란(Javier Durán)(2000), 후아니타 가르시아고도이(Juanita Garcíagodoy)(2000)는 이 소설에 나타나는 기억, 유토피아, 헤테로토피아⁴⁾에 대해 기술한다. 2000년대 이전의 비평가들이 소설 속 세기말의 우울함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에 대해 주로 다루었다면, 2000년대 이후에 등장한 비평가들은 포스트휴머니즘을 바라보는 데 있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가령, 클레어 테일러(Claire Taylor)는 『『지상의 천국들』에 나타난 도시, 코드, 사이보그』라는 글에서 사이보그는 “도시, 코드, 몸이 재형성되고 재구성되면서” 탄생한다고 설명한다. 이렇듯, 테일러와 같은 비평가들은 세기말의 소설을 더 이상 디스토피아에 사로잡힌 내러티브로 읽지 않고, 오히려 기계와 사이보그와의 공존에 주목하는 새로운 포스트휴머니즘적 비전을 제시한다. 포스트휴머니즘의 긍정성을 강조하는 비평가들은 포스트휴머니즘이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사회 구조와 동떨어진 이질적 개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포스트휴먼 담론에서 인간과 동물, 생물과 무생물의 물질적 결합을 지칭할 뿐만 아니라 “사이보그적인 융합 문화”로서 확장된 몸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Desblache 2012:245). 본고에서 사용하는 혼종성이라는 용어는 인간과 기계의 결합 과정에서 탄생한 ‘중간자적 존재’가 내포하는 정치적 함의를 강조한다.

- 4)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말과 사물』에 처음으로 언급한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라는 용어는 유토피아처럼 비현실적인 공간이 아닌, 현실의 대안으로서 기능하는 공간이다. 헤테로토피아는 현실을 다르게 보이도록 하고, 열려 있는 동시에 닫혀 있는 공간이며 익숙한 사물들이 재배치되는 ‘일종의 반공간(contre-espace)’이기도 하다. 엄경희(2019)에 따르면, “유토피아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장소라면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는 현실에 실재하는 유토피아적 장소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공간은 “신화를 해체하는 ‘장소-언어적’ 전략으로 전복, 와해, 혼란, 무효 등의 문학적 수사에 근거한 부정적 또는 비판적 상상력의 소산이라 할 수 있는 장소성의 개념이다”.

『지상의 천국들』이 출간되고 9년 뒤에 출간된 『완벽한 소설』에 대한 비평 역시 포스트휴머니즘적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라우라 루스타우(Laura Loustau)(2011:737)는 앤드류 브라운(Andrew Brown)의 “테크노-글쓰기(tecno-escritura)” 개념을 차용하여 소설과 기술이 어떻게 서로 연계되어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지 분석한다. 루스타우는 소설과 기술의 만남이 “모더니티와 포스트모더니티가 라틴아메리카를 구성하고, 재구성하는지 보여주는 고유한 관점을 제공”한다고 피력한다. 동시에 루스타우는 이 소설이 보여주하고자 하는 바는 기계와 인간, 현실과 가상의 대립이 야기한 “완벽한 소설”의 실패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견하는 진정한 소설의 가치임을 밝힌다.

앞서 언급한 『지상의 천국들』과 『완벽한 소설』의 비평들이 포스트휴먼적 관점에서 의미 있는 해석들을 내놓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본고는 이러한 비평들이 사이보그라는 새로운 형태의 인간이 등장한다는 설정에 집중한 나머지 포스트휴먼을 유토피아나 디스토피아라는 두 세계안에만 위치시키며, 사이보그와 포스트휴먼에 대한 제한된 해석을 내놓은 것은 아닌가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기한다. 『지상의 천국들』과 『완벽한 소설』은 포스트휴먼 시대를 마주하는 인간의 양가적 감정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소설은 혼종성이 강조된 사이보그를 통해 기계와 인간이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순간 통제권이 기계로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근원적인 불안감을 담아내면서도, 복합적이고, 다중적이고, 유동적인 주체로서 포스트휴먼의 긍정적 가치를 발견한다. 소설은 앞으로 다가올 혹은 이미 온 포스트휴먼 시대를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는다. 단지 새로운 시대에서 인간이 지닌 고유한 가치들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질문들을 다각도에서 던질 뿐이다.

본 연구는 보우요사의 『지상의 천국들』과 『완벽한 소설』에 나타난 혼종적 사이보그들을 중심으로 포스트휴먼적 은유와 환유들을 분석한다. 혼종적 특징이 극대화된 사이보그가 탄생한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포스트휴먼 시대에서 물질과 비물질,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가

어떻게 흐려지는지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포스트휴먼 시대는 어떠한 방식으로 비물질화와 디지털화가 재현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또한 전통적인 인간의 고유한 가치로서 인간의 출산, 역사가 어떻게 재인식되며, 인간의 생물학적 신체 개념이 어떻게 확장되면서 재정의 되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완벽한 사이보그-기계가 되기를 거부하는 『지상의 천국들』의 등장인물이 집착하는 역사적 글쓰기는 무엇을 의미하고, 『완벽한 소설』의 등장인물이 집착하는 창조적 글쓰기는 어떻게 인간 고유의 가치로서 의미를 갖는지 고찰한다.

II. 포스트휴먼적 시선으로 본 보우요사의 소설

1. 물질과 비물질

캐서린 헤일즈(Katherine Hayles)(1999:291)는 “우리는 언제나 포스트휴먼이었다”고 표명하며, 우리가 주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안경, 의족, 의수, 핸드폰과 같은 기계들이 인간의 삶 속에 깊이 침투해 있었음을 지적한다. 우리가 의식하기 전부터 우리는 기계와 공존하고 있었다는 면을 지적하며 포스트휴먼이라는 말을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헤일즈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여전히 헤일즈가 정의하는 포스트휴먼과 우리가 떠올리는 포스트휴먼의 형상과는 간극이 있어 보인다. 포스트휴먼 혹은 사이보그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SF 장르 속 기계와 인간이 매끄럽게 결합된 형태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 사이보그들은 분명 현재 우리의 모습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첨단 기술을 사용하고 많은 것이 디지털화 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포스트휴먼이나 사이보그라는 용어로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데는 주저하게 된다. 이는 아마도 인간의 기계화 혹은 인간과 기계의 혼종이라는 정의가 인간이 기계와 구분되는 인간만이 지닌 고유한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불안감과 이에 대한 거부감에서 기인할 것이다.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포스트휴먼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수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지 몰라도, 인간의 몸과 기계가 기술적으로 매끄럽게 결합된 인간의 사이보그화를 적극적으로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쾌한 대답을 내리기 쉽지 않다.

『지상의 천국들』은 에르난도(Hernando)가 화자로 등장하는 멕시코 식민 시대, 에스텔라(Estela)가 서술하는 20세기, 특정할 수 없는 미래를 사는 레아(Lear)가 그리는 이야기라는 세 개의 독립적인 내러티브가 병렬적으로 나열된다. 소설은 지구 멸망 이후 아틀란티스(L'Atlantide)라는 미래 행성에서 사는 레아의 목소리로 시작한다. 레아는 비물질화, 디지털화 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마지막 인간으로서 모든 변화를 목도하는 인물이다. 레아가 사는 시대에 인간 고유의 전유물이던 언어는 디지털화된 컴퓨터 코드로 대체되고, 인간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점차 무의미해진다. 이 시대에서 기존의 언어는 “N41, N42, N43, 087”⁵⁾와 같은 코드로 대체되고, 태아를 생성시키는 인큐베이터는 어머니의 자궁을 대신한다. 인간은 더 이상 이름으로 불리지 않으며, 어느 누구도 인간의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자신의 이름, 언어, 문자적 기록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소설이 레아의 이야기만 다룬 것이 아니라, 멕시코 식민 시대와 20세기 현대와 같은 과거의 사건을 병렬적으로 배치시킨 점은 포스트휴먼 시대를 과거, 현재의 연장선상으로 보며, 그 안에서 변화된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으로 읽어낼 수 있다. 소설은 에르난도가 인디오 사제로서 겪었던 사회적 차별이나 에스텔라가 경험한 20세기 멕시코 정치적 격동기를 보여주면서 아포칼립스적 시대를 사는 레아가 마지막 인간으로서 사이보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인간적 가치를 보존하려고 노력하는지

5) 가령, N41은 “당신은 지금 이상한 소음들로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를 의미하고, N42는 “이 말은 불쾌감을 유발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유도합니다”(Boullosa 1997:92)라는 뜻을 내포한다.

보여준다.

『지상의 천국들』이 포스트휴머니즘 시대에서 사이보그와 구분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면, 『완벽한 소설』은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포스트휴머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작가로서 소설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들을 던진다. 소설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들이 기계화되는 시대에 과연 인간의 전유물이던 소설이 그 영역을 보존할 수 있을지 아니면 AI와 함께 진화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소설을 탄생시킬지에 대한 작가의 고뇌와 불안을 엿볼 수 있다. 실제로 2006년 일본에서는 AI가 쓴 단편소설이 작가들과 겨루어 1차 심사를 통과했다. 인간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창작 활동마저도 AI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기계와 구별되는 인간만이 가진 무언가가 있다고 믿는다. 『완벽한 소설』은 설령 작가의 상상력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완벽한 소설”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브라운(2010:20)은 현대의 미디어와 새로운 기술이 물질의 의미를 변화시킨다고 지적한다. 브라운에게 포스트휴머니즘은 “물질(material)의 세계가 비물질화(dematerialize)되어가는 과정”이다. 과거에 만질 수 있는 것들은 점차 만질 수 없는 것으로 대체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문자의 이미지화이다. 종이에 인쇄된 물질성으로서의 활자는 점차 이북(e-book), 유튜브를 통해 이미지화되고, 비물질성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 물질의 비물질화를 촉진하는 것은 기계와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소설 속에서는 인간이 탄생하는 신성한 영역까지도 비물질화가 이루어진다. 소설의 첫 시작을 여는 레아의 독백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인간의 탄생 과정을 보여준다. “현재 내 이름은 레아이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내 과거는 증발했다. 커뮤니티 사람들은 서로를 기호로 부른다. [...] 생성기에서 처음 만들어지고, 이후에 요람이라고 불리는 곳을 거쳐 이미지 수신기를 통해 태어난 나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다” (Boullosa 1997:15). 『지상의 천국

들』이 출간된 후 한 인터뷰에서 보우요사(2009:151)는 소설 속 이 구절을 인용하며 그가 생각하는 포스트휴먼이란 생물학적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인공적인 부모’를 둔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라고 정의한다. 소설 속 포스트휴먼은 신의 영역이었던 인간의 출생에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과거에 생물학적 특징이 유전적 요인으로 ‘주어지는 것’이었다면, 이제 유전은 출생을 주관하는 사람의 ‘선택의 문제’로 넘어가버렸다.

『완벽한 소설』에서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없어지며 발생하는 또 다른 형태의 비물질화의 과정을 엿볼 수 있다. 하이퍼리얼리티(Hyperreality)는 실재하지 않는 현실이지만 현실을 지배하는 또 다른 유형의 리얼리티이다. 과거의 주체가 현실을 인식하는데 물질(material)이 중심에 있었다면, 포스트휴머니즘 시대에는 비물질(dematerial)이 물질의 영역에 흡수되고 융합된다. 물질보다 더 물질화된 비물질성은 현실의 세계에 깊숙이 들어오고,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를 흐리며 인간의 인식, 지각의 개념을 확장시킨다. 여기서 비물질은 보드리야르가 강조한 시뮬라크르와 하이퍼리얼 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 보드리야르(1994)는 시뮬라크르가 새로운 실재로 둔갑하면서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실재를 대체하는 것을 하이퍼리얼이라고 이해한다. 『완벽한 소설』은 레데레(Lederer)가 햇바닥 아래에 최첨단 칩을 넣고 소설을 쓰는 과정을 통해 하이퍼리얼을 구현한다. 이 하이퍼리얼 속에서 레데레가 창조한 이미지들은 유명 처럼 부유하기도 하고, 중첩되기도 하는 등 과잉의 이미지들을 생산한다. 그리고 이는 실재보다 더 강렬하게 작용하며 레데레의 실재를 잠식한다. 이렇게 이미지의 홍수 속에서 레데레는 물질의 경계가 흐려지는 것을 느끼며 세계가 확장되는 경험을 한다.

2. 사이보그의 혼종성, 그 양가적 의미에 대하여

2-1.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사이 그 어딘가

『지상의 천국들』에서 지구가 멸망한 이후 새로운 인류가 사는 행성인 아틀란티스⁶⁾는 유토피아도 디스토피아도 아니다. 아틀란티스는 다양한 형태의 포스트휴먼이 거주하는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그 어딘가에 위치한다. 아틀란티스에서 거주하는 레아는 사이보그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전통적인 인간과 가장 유사한 인물이다. 레아는 이미 사이보그화가 진행된 주변 인물들과 동화되지 못하고, 전통적인 인간이 사용하던 이름과 언어를 고수하고, 아카이브를 통해 역사를 후대에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반면, 카슨(Carson)은 이미 신체의 사이보그화가 진행되고 있는 인물이다. 카슨과 레아의 의사소통은 코드화된 기호들로 이루어지며, 이는 최소한의 정보 전달 기능만 할 뿐이다. 라몬(Ramón)은 카슨보다 한 층 더 섬세한 기계화가 진행된 인물이다. 그는 전자뇌와 매끈한 기계-신체를 보유하며 새로운 세상에 완벽히 적응한 인물로 그려진다. 소설은 이렇게 한 공간에 있음에도 다양한 양상의 포스트휴먼을 전시하며, ‘지금 여기’ 우리의 자화상을 담아내는 유토피아도 디스토피아도 아닌 공간을 묘사한다.

소설의 시공간적 측면에서 『지상의 천국들』이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지구에서 지구 밖의 행성으로 소설의 내러티브를 확장시켰다면, 『완벽한 소설』은 브라운스톤의 집이라는 제한된 공간 내부로 침잠하며 미로와 같은 다차원적인 시공간을 창조한다. 프리에토가 진행한 한 인터

6) 아틀란티스라는 이름은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의 <크리티아스>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플라톤의 글을 제외한 어디에서도 아틀란티스에 대한 정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찬란한 문명을 지닌 아틀란티스가 실존하는 장소인지 허구의 장소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보우요사의 소설 속 아틀란티스는 플라톤이 언급한 아틀란티스를 떠올리며, 실제/허구, 유토피아/디스토피아의 어딘가를 부유하는 상상의 공간임을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뷰에서 이 브라운스톤의 집은 보우요사가 실제로 거주했던 브루클린의 집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보우요사(2006:75)에 따르면 브라운스톤의 집은 “하나의 거대한 빈껍데기 같았다. 피부만 있거나 아니면 뼈만 있는 것 같은 형상”이었다. 이 빈껍데기 같은 기괴한 공간은 또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내며,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완벽한 소설』에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베르티스(Vertiz)와 기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포스트휴먼인 레데레 같은 인물들이 공존한다. 레데레는 작가의 상상을 그대로 재현할 수만 있으면 완벽한 소설이 구현될 것이라고 믿으며 베르티스에게 ‘완벽한 소설’을 함께 쓰자고 제안하지만, 이들의 꿈은 시뮬라크르가 넘치는 가상현실 속에 그 실체를 잃는다. 작가가 소설이라는 세계를 창조하는 신이라고 가정 할 때, 완벽한 소설을 쓰려고 했던 레데레와 베르티스의 시도는 기술을 이용해 신의 위치에 오르려고 한 것이다. 소설은 신이 되고자 했던 작가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신이 된 인간이 그리는 세상(소설)이 유토피아인지에 대해 반문하며 새로운 기술과 함께 도래할 세상에서 발생할 문제점들을 간과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오랜 시간 인간이 남성/여성, 백인/유색인, 정신/육체, 언어/비언어와 같은 이분법적 구분에 저항하는 투쟁의 역사를 이어갔다면, 포스트휴먼 시대에는 인간/비인간의 영역으로까지 그 투쟁이 확장된다고 볼 수 있다. 인간 내에서의 젠더, 인종, 계급간의 갈등은 이제 인간의 영역 외부에서 인간을 위협하는 기술적 존재의 갈등상황도 함께 고려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런 기계들이 오랜 인간 역사에 존재하던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어쨌든, 기술의 발달이 젠더와 인종의 차이를 무화시킬지, 극대화시킬지에 대해 확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인간과 기계의 결합으로 탄생한 사이보그라는 새로운 존재는 전통적인 인간을 주변부에 위치시킬 수 있다. 과거에는 지식이 권력과 불가분의 관계를 통해 지배계층의 이익을 공고히 했다면, 포스트휴먼 시대에는 기술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브라운(2010:51-52)은 “레아는

분명 포스트휴먼이기는 하지만” 사이보그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주변부에 위치한 인물”이라고 해석한다. 하지만, 보우요사가 그리는 사이보그는 단순히 인간을 주변부로 전락시키고, 비인간성이 극대화된 기계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오히려 보우요사의 사이보그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포스트휴먼의 과도기적 얼굴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실체이며, 유토피아도 디스토피아도 아닌 현재의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

2-2. 사이보그 신체의 혼종성

본래 사이보그란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와 ‘생물(Organism)’의 합성어로 인간과 기계의 결합으로 탄생한 혼종적 존재이다. 하지만 ‘혼종’이라는 용어가 보여주듯,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인간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기계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때로는 기계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사이보그의 얼굴은 양가성을 띤다. 본고에서는 이 양가성과 맞닿아 있는 혼종성 개념에 주목하고, 이 혼종성이 내포하는 긍정적 함의를 통해 포스트휴먼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에 도달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인간과 완벽히 기계화된 사이보그들 중간에 있는 혼종적 사이보그들은 유토피아도 디스토피아도 아닌 지금 우리의 현실에 존재하는 포스트휴먼의 고민을 효과적으로 반영한다. 사이보그 혼종성은 서구 중심의 휴머니즘으로부터 탈주하면서도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가치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한다는 점에서 포스트휴먼의 이상적인 얼굴을 제시한다. 나아가 사이보그의 혼종성은 균형 잡힌 인간과 기계의 적절한 결합을 유도하고, 전통적 과거의 이분법적 구분 위에 기반 하여 각종 차별을 유발하는 세계에 균열을 가하며, 유동적이고, 다성적이고, 유목적인 새로운 주체를 상징한다.

사이보그 혼종으로서의 몸은 인간의 생물학적 몸처럼 더 이상 통일

되고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되지 않고, 분절된 기관으로 묘사된다. 레아의 친구 카슨을 통해 드러나는 혼종적 사이보그의 신체는 그로테스크하며 극단의 혼종과 인공적인 요소로 기존의 생물학적 신체에 도전한다. 카슨의 신체를 묘사한 부분은 분절된 신체들이 난무한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떠올리게 한다. “카슨은 팔 한쪽을 몸에서 분리시켰다. [...] 갑자기 그녀의 손가락 하나가 귀에서 나왔고, 다른 하나는 그녀의 코에서 나왔다. 카슨은 입을 열었다. 입 안의 혀 뒤에서 나머지 손가락들이 보였다” (Boullosa 1997:352). 이렇듯 카슨의 몸은 유기체적 구조를 파괴하고 얼굴, 몸통, 팔, 손이 다른 위치에서 서로 결합하기도 하고 모두 분절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소설 속 카슨의 이미지는 괴물 혹은 돌연변이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카슨은 “스스로 사이보그임을 표명한다. 그녀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요소들이 접목된 사이보그적인 유기체”이기 때문이다 (Taylor 2003:488). 때로는 기계에 가깝고 때로는 인간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지만, 이 둘의 경계는 모호하게 재현된다. 이렇게 전통적인 인간의 몸이 유럽남성중심주의를 바탕으로 성적 양극화와 젠더 이분법을 상징한다면, 사이보그의 혼종성은 이원론의 지배에서 주체를 탈식민화한다.

많은 SF 소설에는 카슨과 같은 기괴한 형상들의 괴물들이 등장한다. SF 소설에 나타난 괴물의 형상을 분석한 바바라 크리드(2017:23)는 괴물-타자로 형상화된 여성은 남성-주체의 공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가부장적이고 남근중심적인 이데올로기 안에서 구성된 여성괴물성의 개념”은 “성차와 거세의 문제와 밀접하고 연관”이 있다고 본다. 크리드는 정신분석학적 접근을 통해 여성이 비천하고, 끔찍하고, 역겨운 양상으로 재현되는 이유는 ‘원초적 어머니(archaic mother)’의 형상을 동물적이고 비문명적인 것과 연결시키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어머니가 아이를 뱃속에 품는 것이 마치 아이를 집어 삼킨 것 같은 자궁과 동일시되며 어머니의 육체는 끔찍한 여성괴물의 형상과 겹쳐지는 것이다. 그렇게 재현된 여성괴물은 남성-주체의 불안을 드러내는 존재이자

그들을 매혹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남성을 위협하든지 매혹하든지 간에 안정된 남성중심의 사회 체제에 균열을 가하는 그들의 존재는 그 자체로 사회악으로 간주되며 제거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하지만 보우요사의 소설에 등장하는 기괴한 사이보그들은 여성괴물이 내포하는 여성혐오라는 정치적 함의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을 괴물-타자로 간주한 이전에 SF 소설들과는 달리 보우요사의 괴물적 사이보그의 중심에는 ‘혼종성’이 자리 잡고 있다. 보우요사의 사이보그는 단순히 여성 혐오가 반영된 실체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한데 어우러진 혼종적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전의 이분법으로 구분되던 요소들이 혼재하는 형상을 띤다. “두 가지 다른 요소들의 접목”되어 있는 카슨의 신체를 살피며, 소설 속 사이보그들은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와 들뢰즈의 영향을 받은 브라이도티(2013:92)의 ‘기계-되기(becoming-machine)’를 연상시킨다. 기계-되기는 “부분적, 복합적, 다중적으로 변화하는 유목적 주체이자 타자들과의 유대를 지향하고, 인간중심에서 벗어나 동물, 광물, 식물, 외계, 기술 세계들과 함께 연속체를 정립하고자 한다.” 여기서 ‘되기(becoming)’는 역동적인 흐름으로서 소수자의 방향으로 움직이며 지배적인 담론을 해체한다. 이는 브라이도티(2013:146)의 “중-평등주의 조에-기반(zoe-centered) 시스템”과 연결되며 “여성, 유색인종, 원주민, 동물, 환경, 대지”(27)와 같은 타자들을 해방시킨다. 이렇게 사이보그의 혼종성은 인간의 생물학적 몸이 가진 정치적인 함의들에 저항할 뿐만 아니라 인간중심적 사유에서 벗어나 동물, 식물, 기계와 광의적 결합을 지향하는 긍정적 가치를 내포한다.

『지상의 천국들』에 등장하는 사이보그의 혼종성이 인간의 신체와 기계의 기괴한 접목이라는 극단적인 외향 묘사를 통해 나타난다면, 『완벽한 소설』에 등장하는 사이보그의 혼종성은 굴절되고 중첩되고 확장된 디지털을 기반으로 가상과 현실의 접목으로 탄생한 기괴한 신체로 표현된다. 베르티스가 창조한 모비타(Movita)의 시물라크르들은 베르티스의 현실 속 아내인 사라와 겹쳐지며 사라-모비타라는 새로운 차원의 인물을 탄

생게 한다. 현실과 가상 그 어딘가에 존재하는 사라-모비타의 이미지는 중첩되고 변형되며 그로테스크하고 분절된 신체를 갖는다. “투명인간처럼 사람들의 몸을 관통하며 다녔지만, 분명 투명인간은 아닌”(Boullosa 2006:142) 사라-모비타는 실존하는 인물도, 가상 속의 인물도 아니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 위의 인물은 베르티스의 칩으로 탄생한 또 다른 포스트휴먼이다. 모비타의 이미지는 가상에 속하지만 이 가상이 현실에 깊숙이 침투하면서 현실의 개념을 변형, 확장시키고, 나아가 시각과 인지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각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포스트휴먼적이다. 『완벽한 소설』에 등장하는 가상현실 속 사이보그는 포스트형이상학적이라고 이해하는 해러웨이의 포스트휴머니즘적 시각과 맞닿아 있다. 포스트인간중심주의적이고 기술친화적인 입장을 표명한 해러웨이는 사이보그로서의 인간은 신체와 기계, 내적 현실과 외적 현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현상을 해석한다고 주장한다. 베르티스를 통해 보다시피 기술과 신체가 밀접하게 연관된 사이보그의 인지방식은 기존의 세상을 인지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2-3. 사이보그의 역설: ‘완벽함’ 너머의 ‘인간적인 것’을 찾아서

보우요사의 소설은 급변하는 포스트휴먼 사회를 직면한 인간의 양가적인 감정을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기술 발달은 장기 이식과 약물 주입, 기계와의 결합으로 탄생한 향상된 인간을 가능케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준다. 하지만 동시에 정교하고 섬세해진 사이보그가 인간의 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유발하기도 한다. 기술이 허락하는 한 인간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인간을 닮은 사이보그를 만들어 내고자 한다. 기술과 인간의 자연스러운 결합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이상적인 존재는 ‘완벽한 기계’로서의 사이보그가 아니라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사이보그이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사이보그의 역설이 발생한다.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사이보그는 결국 ‘인간’이기에 ‘완벽’하지 않은 사이

보그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소설은 이 역설적인 상황에 주목하며, 이상적인 사이보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것이 어떻게 ‘인간적인 것’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인간적인 것’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지상의 천국들』은 사이보그 사이에서 마지막 인간으로 남고자 하는 레아의 모습을 통해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 고유의 가치에 집착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소설은 인간의 몸 외부에서 태어난 포스트휴먼을 ‘역사가 존재하던 시대(el tiempo de la Historia)’라고 명명하는 과거의 인간과 구분 짓는다. 역사를 인식하고 이를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닌 존재냐 아니냐에 따라 인간과 포스트휴먼을 구분하는 것이다. 여기서 역사는 과거의 사건이 물질성으로서의 문자로 기록되던 시기를 지칭하며, 인간을 문화적 구성물로 인식하고 과거가 현재와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함축한다. ‘역사가 존재하던 시대’의 인간에게 이름은 부모님을 비롯해 과거의 조상들과 연결시켜주는 현재적 기호이며 나아가 한 국가나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근간이 된다. 때문에 레아는 이름을 유지하는 행위를 통해 인간의 역사를 계승하고자 하는 열망을 표출한다.

소설은 에르난도, 에스텔라, 레아라는 각기 다른 시대를 사는 인물들을 하나로 연결시키며 멕시코 역사를 조명한다. 이 세 인물들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는 에르난도가 남긴 필사본(manuscrito)이다. 스페인은 멕시코를 침략 한 이후 소수의 선택된 인디오들을 교육시켜 인디오 엘리트 그룹을 만들었는데, 에르난도는 이 그룹에 속한 인디오 중 하나이다. 에르난도는 스페인 침략자들의 식민지배 과정에 이용당한 인물이자 멕시코가 경험한 문화접변(aculturación)의 산물이기도 하다. 에르난도는 자신의 글이 “미래에도 살아남기를”(Boullosa 1997:70) 바라며 식민시대 인디오 사제로서 받은 차별을 기록하는 자서전 형식의 글을 남긴다. 물론 그는 자신이 남기는 글이 훗날 ‘역사책’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글을 쓴 것은 아니었다. 그는 단지 사제 학교를 다니며

느꼈던 외로움과 인디오로서 겪은 차별적 상황들을 글로 남기고 그 글이 먼 미래 누군가에게 닿을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위안이 되었기에 글을 썼던 것이다. 그의 바람대로 그가 남긴 필사본은 이후 20세기를 사는 에스텔라의 손에 닿게 된다. 메스티소인 에스텔라 역시 에르난도처럼 유색인종으로서, 여성으로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물이다. 소설은 에스텔라의 이야기를 통해 멕시코의 뿌리 깊은 인종적, 성적 차별을 비롯해 부정부패가 심각한 멕시코 정부를 고발한다. 에르난도와 에스텔라의 글은 이후 레아의 손에 들어가고, 레아는 그 글을 통해 ‘역사가 존재하던 시대’의 사람들과 만나는 경험을 한다. 레아는 “더 이상 이 커뮤니티에 있기 힘들다. 에스텔라와 에르난도가 있는 그 영토로 건너가 다시 문자가 될 것이다. [...] 책에 존재하는 그 공간이 진정한 영토임에 틀림없다” (Boullosa 1997:368).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가 모호한 포스트휴먼 시대를 사는 레아에게 에르난도와 에스텔라가 남긴 필사본은 물질성으로서의 문자의 은유이며, 레아가 이 필사본을 소유하게 되면서 사이보그들과 구분되는 인간 고유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된다. 레아에게 “문자로 돌아가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레아가 기계-사이보그와 구분되는 자신만의 “진정한 영토”에 도달하도록 한다.

에르난도가 멕시코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씨앗”(Boullosa 1997:119)이라면, 에스텔라와 레아는 에르난도의 ‘씨앗’이 어떻게 발아하고, 열매를 맺는지 서술한다. 에스텔라와 레아는 에르난도의 ‘씨앗’이 공식 역사로 굳어져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은폐하지 않도록 멕시코의 집단기억(memoria colectiva)으로서의 역사를 담아내도록 노력한다. 두 여성 인물들의 노력은 에르난도의 필사본을 적극적으로 수정하는 모습을 통해 드러난다. “필사본은 상태가 좋지 않았다. 어떤 부분들은 얼룩 때문에 읽기 어려웠다. [...] 그래서 빈 부분들은 내 마음대로 수정했다”(Boullosa 1997:53)는 말처럼, 필사본의 비가독성으로 인해 에스텔라의 역사 다시쓰기 작업이 진행되었고, 이는 메스티소 여성으로서의 차

별적 경험이 반영된 글쓰기를 가능케 했다. 에르난도의 서사는 인디오 사제로서 겪은 인종 차별을 고발하기는 했으나 인디오 여성의 목소리를 배제한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반면에 에스텔라의 다시 쓰여진 역사는 과거에 은폐된 여성의 목소리를 복원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수정된 필사본은 시공간을 뛰어넘어 에르난도, 에스텔라, 레아를 대개하며, 기계와 공존하는 포스트휴먼 시대에서 인간적인 가치를 재확인 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이보그와 달리 기억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과거가 있다는 것은 현재의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과거의 실수를 보완하며, 미래의 인간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레아가 말한 것처럼, “우리 셋은 한 영토에서 살 것이다. [...]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할 수 있는 공동의 공간을 획득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Boullosa 1997:369). 멕시코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연결되는 그 ‘영토’는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지상의 천국들’을 상징하며, 이는 결국 멕시코의 역사를 아우른다.⁷⁾ 소설은 이렇게 각 시대의 개인의 기억이 모여, 집단의 기억이 되고, 그 기억이 인간을 구성하는 방식을 통해 어떻게 인간이 사이보그와 다른지 자문하도록 유도한다.

『지상의 천국들』이 역사적 글쓰기를 강조하며 인간이 기계와 구분되는 지점을 지적한다면, 『완벽한 소설』은 창조적 글쓰기의 과정에서 탄생하는 ‘열린 소설’의 미학을 통해 그 문학적 가치를 발견한다. 『완벽한

7) ‘지상의 천국들’이라는 구절은 소설의 에피그라프에도 언급된다. 베르나르도 데 발부에나(Bernardo de Balbuena)(1985)의 『멕시코의 웅장함 *La grandeza Mexicana*』이 신대륙의 자연 환경을 비롯해 건축, 동식물, 인간을 찬양하는 서정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상의 천국들’은 멕시코의 찬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의미한다. 에르난도에서 시작해서 에스텔라와 레아로 이어지는 멕시코의 역사는 각 시기가 모두 각각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기에, ‘지상의 천국’이 아닌 ‘지상의 천국들’인 것이다. 디아나 소피아 산체스 에르난데스(Diana Sofía Sánchez Hernández)(2010) 역시 소설의 제목이 보여주는 복수형에 주목한다. “지상의 천국들이라는 제목은 인디오들뿐만 아니라 멕시코 전체를 아우르는 거시적 공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공간에는 기독교적 관점뿐만 아니라 인디오적인 관점이 모두 포함된다.”

소설』은 제목에 역설적이게도 완벽하지 않은 소설이 주는 ‘소설다움’에 대한 소설이다. 기술 발달로 인간의 외형을 닮은 사이보그를 넘어서 인간처럼 사고하는 인공지능은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여긴 창조의 영역까지 그 활동 영역을 확장했다. 미술, 음악, 글쓰기 같은 창작 활동의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은 꽤 그럴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설은 칩을 이용해 인간이 소설을 쓰면서 작가의 상상을 ‘완벽하게’ 재현한다면 ‘완벽한 소설’이 탄생하지는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포스트휴먼 시대 ‘소설다움’에 대해 재고찰한다. 『완벽한 소설』은 다양한 미디어로 재현되는 이미지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문자가 갖는 힘, 상상력이 갖는 힘은 무엇인지, 완벽하지 않은 소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열린 소설’로서 독자들을 소설 안으로 초대한다.

열린 소설은 현실, 가상현실, 증강현실이라는 다양한 층위의 현실을 보여주며, 주인공이 만들어내는 여러 갈래의 이야기들을 통해 재현된다. 소설의 중심에 있는 내러티브는 작가인 베르티스와 베르티스에게 완벽한 소설을 함께 작업하자고 제안하는 레데레의 이야기이다. 두 사람이 함께 작업한 아나와 마누엘의 이야기는 완벽한 소설이 될 것을 기대했으나 칩을 이용해 베르티스의 글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레데레와의 갈등으로 실패하게 된다. 하지만 베르티스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자신만의 소설을 만나게 된다. 우연한 기회에 보게 된 레온 티그라네스(Leon Tigranes)라는 아랍인의 명함을 보고 새로운 소설에 영감을 받는 것이다. 베르티스는 “소위 영감이라는 것을 받아” 헨리 카플란(Henry Kaplan)이라는 유대인이 주인공인 ‘다이아몬드 소설’을 쓰게 되고, 이는 레데레 뿐 아니라 “그 누구도 마음대로 감시할 수도, 평가할 수도, 말할 수도, 훔칠 수도 없는”(Boullosa 2006:130) 베르티스만의 소설이 된다. 베르티스와 레데레의 완벽한 소설쓰기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나고, 그 과정에서 베르티스가 자신만의 ‘다이아몬드 소설’을 만나면서 서사는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설 말미에 등장하는 베르티스의 서명은 베르티스의 존

재를 현실의 차원으로 확장시키며 등장인물이 살아 있음을 강조한다. 이렇게 작가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등장하는 베르티스의 서명은 다시 한번 독자들에게 진정한 작가는 누구이고, 진정한 소설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여운을 남긴다. 진실(verdad)의 라틴어인 Veritas를 연상케 하는 베르티스라는 이름은 포스트휴먼 시대에 소설의 진정한 의미를 쫓는 마지막 인간의 메타포로 읽어낼 수 있다.

레데레와 베르티스의 ‘완벽한 소설’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나지만 그 과정에서 탄생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의 갈래들은 어떤 것들이 진정한 소설이 되는지 보여준다. 결국 레데레를 통해서 본 ‘완벽한 소설’은 작가의 상상을 ‘완벽하게’ 재현해 낸다고 탄생하는 것이 아니다. 우연한 기회에 영감을 얻어 시작된 이야기, 작가의 의도적인 서사 전개와 그 사이 사이 우연하게 떠오르는 서사가 공존하며 그리는 이야기, 소설 속 허구의 인물들이 능동적으로 서사를 이끌어가는 이야기야말로 진정한 소설에 가깝다.⁸⁾

III. 맺음말

본 연구는 『지상의 천국들』과 『완벽한 소설』에 나타난 포스트휴머니즘적 상징들, 특히 사이보그 혼종과 증강현실 속 디지털 사이보그에 대해 분석하여 포스트휴머니즘적 주체에 대한 이해에 도달한다. 두 소설

8) 『완벽한 소설』은 소설이 탄생하는 과정을 통해 예측불가능성과 우연성의 미학에 주목하며 진정한 소설의 가치를 강조하는데, 이러한 우연성의 미학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와 훌리오 코르타사르(Julio Cortázar)의 소설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문학 기법이다. 작가의 의도대로만 흘러가지 않고 미끄러지는 서사는 소설 속의 인물들이 능동적으로 서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두며 ‘열린 소설’로 이끈다. 이 ‘열린 소설’은 작가가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들이 소설을 ‘만들어가는’ 위치로 탈바꿈할 때 독자들의 참여를 극대화시키며 소설을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 시킨다.

속에서 재현된 혼종성이 부각된 사이보그는 물질/비물질의 경계에 선 존재이자, 분절되고 비유기적 형태를 띠며 신체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인간의 역사와 역사적 글쓰기, 창조적 글쓰기의 과정을 통해 인간적인 가치를 재확인하고자 하는 포스트휴먼이다. 본고에서 살펴보는 사이보그의 혼종성은 인간과 기계의 기술적 결합의 의미를 넘어서 사이보그화 되는 세상에서 ‘되기(becoming)’의 과정을 겪고 있는 모든 인간을 포괄한다. 기계화된 신체를 로봇으로 표현한 다른 공상과학 소설과는 다르게, 보우요사의 소설은 혼종성이 강조된 사이보그를 재현한다. 『지상의 천국들』에서는 기계와 인간의 신체가 그로테스크하게 접목된 상태로 드러나고, 『완벽한 소설』에서는 가상과 현실의 경계에서 탄생한 시물라크르적 신체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소설은 포스트휴먼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사이보그와 인간의 경계에 있는 사이보그들을 통해 인간이 기계와 구별되는 지점을 찾고 포스트휴먼 시대에 기억하고자하는 인간적 가치들을 성찰한다. 『지상의 천국들』은 인간의 출생 까지도 인공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시대에 여전히 과거에 집착하고 글로 모든 것을 남기려는 레아의 행위를 통해 인간적 가치로서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강조한다. 『완벽한 소설』은 현실과 증강현실 사이에서 ‘완벽함’에 도달하고자 하는 작가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생각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소설이 진정성을 가진 소설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그 과정에서 작가의 영감으로 탄생해 작가의 온전한 소유물이 된 소설을 비롯해 다양한 층위의 ‘열린 소설’들을 제시하며 독자들의 적극적인 해석을 유도한다.

보우요사의 『지상의 천국들』과 『완벽한 소설』은 기계와 인간의 대립 구도에만 초점을 맞춘 전통적인 SF 소설의 한계를 넘으며 혼종성이 부각된 포스트휴먼을 전시함으로써 사이보그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 도달한다. 포스트휴먼의 성격을 규명하려는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이고, 유동적인 주체로서 인간과 기계의 광의적 결합을 지향하는 포스트휴먼의 얼굴에 주목한다. 보우요사

의 소설들이 갖는 현재적 의미는 캐서린 헤일즈가 지적한 고도의 기술화 된 시대, 이미지와 영상이 지배적인 시대에서 문학 작품이 갖는 의미와도 맞닿아 있다. 헤일즈(1999:21)에 따르면, 문학은 “과학 이론이나 기술 혁신이 갖는 의미를 문화적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재현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그와 관련된 복잡한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쟁점들을 구체화”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보우요사의 소설은 기술이 어떻게 인간과 공존하며 새로운 문화의 지평을 넓힐 것인지에 대해 비판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문학적 가치를 가진다.

■ 참고문헌

- 로지 브라이도티 지음, 김은주 옮김(2020), 『변신: 되기의 유물론을 향해』, 꿈꾼문고.
- 바바라 크리드 지음, 손희정 옮김(2017), 『여성괴물: 억압과 위반 사이』, 여이연.
- 아르투로 에스코바르 지음, 박정원 · 엄경용 옮김(2022), 『플루리버스』, 알렘.
- 엄경희(2019),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의 장소성에 대한 시학적(詩學的) 탐구」, 『국어국문학』 186, 국어국문학회, 399-440.
- Balbuena, Bernardo de(1985), *La grandeza mexicana*, estudio preliminar de Luis Adolfo Domínguez, Ed, Porrúa, México.
- Baudrillard, Jean(1994), *Simulacra and Simulation*.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Boullosa, Carmen(1997), *Cielos de la Tierra*. México: Alfaguara.
- _____ (2006), *La novela perfecta*. México: Alfaguara.
- _____ (2013), *The Posthuman*. Cambridge: Polity Press.
- Brown, Andrew(2010), *Cyborgs in Latin Americ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_____ (2007), “Tecno-escritura: literatura y tecnología en América Latina,” *Revista Iberoamericana* 221, 735-741.
- Desblache, Lucile(2012), “Guest Editor’s Introduction: Hybridity, Monstrosity and the Posthuman in Philosophy and Literature Today,” *Comparative Critical Studies* 9(3), 245-255.
- Durán, Javier(2000), “Utopia, Heterotopia, and Memory in Carmen Boullosa’s *Cielos de la tierra*,” *Studies in the Literary Imagination* 33(1), 51-64.
- Garciaogodoy, Juanita(2000), “A Spiritual Proposal for the New Millennium

in *Cielos de la tierra*, Earthly Heavens, by Carmen Boullosa,”
NDSU 2.

Hayles, Katherine(1999), *How We Became Posthuman: Virtual Bodies in Cybernetics, Literature, and Informat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araway, Donna(2016), *A Cyborg Manifesto*.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rieto, José Manuel(2006), “La novela perfecta de Carmen Boullosa,”
Letras libres 95, 75-77.

Reid, Anna(2009), “Interview with Carmen Boullosa,” *Journal of Latin American Cultural Studies* 4(2), 145-151.

Taylor, Claire(2003), “Cities, Codes and Cyborg sin Carmen Boullosa's *Cielos de la Tierra*,” *Bulletin of Spanish Studies* 80(4), 477-493.

Loustau, Laura(2011), “Tecnología y literatura en *La novela perfecta* de Carmen Boullosa,” *Espéculo. Revista de estudio literarios*.

<https://webs.ucm.es/info/especulo/numero47/novperfe.html> (검색일: 2022. 06.15.)

Reid, Anna(1995), “*Cielos de la Tierra*: ¿Utopía o Apocalipsis?” *Espéculo* 35
<http://www.ucm.es/info/especulo/numero35/cielosti.html> (검색일: 2022. 06.16.)

Sánchez Hernández, Diana Sofia(2010), “El sujeto como eje constructor del pasado en *Cielos de la Tierra* de Carmen Boullosa,” *Ciberletras* 23.
<http://www.lehman.cuny.edu/ciberletras/v23/sanchezdiana.html>(검색일: 2022. 05. 23.)

(2009), “Al margen: espacio de confluencia textual en *Cielos de la tierra*, novela de Carmen Boullosa.” *Espéculo* 43
<http://www.ucm.es/info/especulo/numero43/almargen.html> (검색일: 2022. 05. 23.)

❖ ABSTRACT

Posthumanism and Cyborg Hybridity in
Carmen Boullosa's *Cielos de la tierra* and
La novela perfecta

Sunyoung Kim

Kyunhee University Center for Cross-Cultural Studies

Mexican novelist Carmen Boullosa's *Cielos de la tierra* (1997) and *La novela perfecta* (2006) reflect the ambivalence of human in the post-human era. The novels explore the positive value of the post-human as a complex, multifaceted, and fluid subject, highlighting the cyborg's hybridity while containing the risk that control might be given to the machine, the moment machine and human are physically merged. While the traditional human body symbolizes sexual polarization and gender dichotomy based on Eurocentrism, the hybridity of cyborg decolonizes the subject in the domination of dualism. This paper focuses on how the 'hybridity' of cyborg represents the transitional state of the human-machine union and discusses the balance between the technological others and human. Also, this paper examines how cyborgs blurred the boundary between material and immaterial and how the hybrid body changed the symbolic meaning of the biological body of humans. Lastly, this paper illustrates the distinction between human and machines through historical and creative writing to find the unique values of human in the post-human era.

Key Words : Carmen Boullosa, posthuman, cyborg, hybridity

■ 논문투고일 : 2022. 09. 08

■ 심사완료일 : 2022. 09. 29

■ 게재확정일 : 2022. 10. 04